

경의(經義)를 주제로 한 책문(策問) 소고

윤선영 *

-
1. 들어가며
 2. 경의를 주제로 한 책문 개괄
 - (1) 책제 개괄
 - (2) 소과 시제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3. 책문의 서술 요소와 선유설 인용
 - (1) 책문 서술 요소 - 전책과 집책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 (2) 선유설 인용의 범주와 방식
 4. 나가며
-

■ 국문요약

본 논문은 '경문의 개념 정의'를 기본으로 하여 경문과 관련한 시제를 다룬 이른바 경책(經策)에 주목하여 이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서오경(四書五經)의 경문은 역사적 인물과 고사, 유명 작가의 시문과 더불어 과거 시험 시제의 주요 소재였다. 필자는 그간 경문을 직접적으로 시험한 생원시 과목의 시제 출제 양상과 경문에서 유래한 시·부의 시제 출제와 관련하여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이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연구의 일환으로, 대책을 필두로 한 대과(大科) 과목의 경문 관련 시제를 분석하고자 하는 첫 시도이다.

책문의 주제가 워낙 다양했던 까닭에 경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소과 시제에 비해서는 낮았으나, 전체 책문 가운데서는 결코 낮지 않은 비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여러 책을 아울러 출제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출제가

*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연구교수 / E-mail: bacaaltto@korea.ac.kr

집중된 경서 및 편장이 뚜렷이 보이지는 않았다.

정책을 출제 주체 및 고시 단계에 따라 집책과 전책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두 책제 간 내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있었다. 집책의 경우는 생원시의 사서의 과목과 길이 상의 차이점이 있을 뿐 형식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에서 모두 비슷하여, 사서의 시제가 곧 책문의 축소판인 느낌을 주었다. 이러한 유사성으로 인해 사서의 과목을 대책으로 오인하게 되는 경우가 잦은데, 이 또한 수궁이 가는 바이다. 전책에서는 경문의 의미를 강구하면서도 결국엔 왕도정치를 중심으로 하여 태평 성대를 이루고자 하는 경세론으로 이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리 선발을 목적으로 경문의 이해도를 시험함이 주목적인 집책과 방향성을 달리하였다.

주제어: 과거(科擧), 시제(試題), 대책(對策), 책문(策問), 경의(經義), 사서오경(四書五經)

1. 들어가며

과거 제도에 관한 학계의 관심은 사학 분야 및 교육학 분야의 제도 중심 연구에서 현재 한문학 분야의 과문(科文) 연구¹⁾로 점차 범주가 확장되고 있다. 과문에 대한 연구는 과문육체(疑·義·詩·賦·表·策)를 중심으로 하는 각 문체별 연구²⁾, 시제 출제 경향³⁾, 답안의 구성과 형

- 1) 이상욱은 『조선 과문 연구』(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에서 과문육체 중 科詩·科賦·科表·科策의 답안 형식과 시제에 대해 분석하며 한문학 분야의 과문 연구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켰다.
- 2) 문체별 연구는 허경진(『東時品彙補』와 허균의 科體詩』(『열상고전연구』 14집, 2001), 장유승(『조선 시대 科體詩 연구』(『한국한시연구』 11집, 2003) 등 科詩에 관한 관심으로 시작하여 科賦, 對策, 表·箋, 疑·義, 箴·銘·頌 순으로 확대되었다. 科詩, 科賦, 對策, 表·箋과 관련한 연구사는 윤선영, 『조선시대 과시의 사서의 연구』(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참조.
- 3) 시제 출제 경향성과 관련해서는 각 문체별로 나름의 성과가 도출되었다. 책문에서는 박재경 『조선시대 책문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식4), 과거 시험 준비 참고서5) 등 그 외연을 넓혀 가며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른바 과문육채라 불리는 6개의 주요 과목 가운데, 그간 많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던 과목은 단연 대책(對策)이라 할 수 있다. 대책은 문과의 초시(初試)와 복시(覆試)의 마지막 단계인 종장(終場)과 합격 이후 등수를 가리는 시험인 전시(殿試)에서 고시된 과목이었다. 그러므로 개인 문집과 과문집 등에 관련 자료가 풍부하며, 시무(時務) 등과 관련한 응시자의 사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점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문학 연구자들에게 환영받아 왔다.

대책에 관한 연구6)는 주로 한 개인 및 왕조별 책문의 특징을 밝히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만 여러 우수 답안들이 다각도로 분석 및 평가된 데 반하여, 대책의 시제인 책문(策問)은 비교적 주목 받

2013), 사서의 및 오경의에서는 윤선영(2019); 「조선시대 과거 생원시의 한 과목인 오경의 시제 소고」(『남명학연구』 67집, 2020), 표(表)에서는 박선이(『肅宗-正祖代 科策과 科表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22), 잠·명·송에서는 김광년(『朝鮮 科試의 箴銘頌 研究』, 『한국한문고전학회』 45집, 2022) 등을 들 수 있다.

- 4) 답안의 구성과 형식에 대해서는 이상욱(「조선 후기 對策 형식의 역사적 추이」, 『열상고전연구』 44집, 2015; 「조선 후기 科表의 문체적 특징과 글쓰기」, 『대동한문학회』 53집, 2017), 박선이(2022), 윤선영(「조선시대 과거 오경의 과목의 답안 구성과 특징」, 『고전과 해석』 38집, 2022) 등을 들 수 있다.
- 5) 노요한 외(「고려대 중앙도서관 만송문고 소장 과시 자료 소개」, 『한문학논집』 62집, 2022), 송채은(「고려대 중앙도서관 만송문고 소장 科表抄 『東林』에 대하여」, 『고전과 해석』 37집, 2022), 박선이(「조선 후기 科文의 실제에 관한 일고찰— 『東儷文』과 『儷林』에 수록된 科表를 중심으로」, 『동양고전학회』 80집, 2020; 「조선 후기 科賦 참고서 表東인에 관한 일고찰」, 『한문학논집』 62집, 2022), 이상욱(「조선 후기 科賦 참고서와 공부 방법 — 『騷賦彙芳』과 『小大由之』를 중심으로—」, 『대동한문학회』 72집, 2022) 등을 들 수 있다.
- 6) 대책에 관한 연구는 박재경(2013); 「세종조 책문의 글쓰기 비교 연구: 成三問, 申叔舟, 李石亨의 對策을 중심으로」(『大東漢文學』 42집, 2015)을 비롯하여 이상욱(2014); (2015), 김동민, 「正祖의 策問: 春秋를 통해 본 조선조 春秋學의 문제의식」(『東洋古典研究』 56집, 2014), 이영환, 「식암 김석주의 책문 연구」(『嶺南學』 63집, 2017), 박선이(2022) 등 개인 및 왕조별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 못하였다. 이는 책문의 소재가 시무로 대표되면서도 도학(道學)과 심성론 등 철학적 내용, 제왕의 덕목과 군신의 도리, 문풍 등 시속(時俗) 관련, 경문의 개념 정의, 자연물 등 워낙 다양하였기 때문⁷⁾으로 판단된다.

필자는 이 가운데 ‘경문의 개념 정의’를 기본으로 하여 경문과 관련된 시제를 다룬 이른바 경책(經策)에 주목하여 이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서오경(四書五經)의 경문은 역사적 인물과 고사, 유명 작가의 시문과 더불어 과거 시험 시제의 주요 소재였다. 필자는 그간 경문을 직접적으로 시험한 생원시 과목의 시제 출제 양상과 경문에서 유래한 시·부의 시제 출제와 관련하여 연구⁸⁾하였다. 본 논문은 이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연구의 일환으로, 대책을 필두로 한 대과(大科) 과목의 경문 관련 시제를 분석하고자 하는 첫 시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 문집에 수록된 책문과 『임헌공령(臨軒功令)』 등의 과문집에 기록된 책제를 기본으로 하고 그 밖에 각종 사료 및 시권(試券), 참고서 등에 보여지는 경문 관련 책제를 대상⁹⁾으로 하여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경문의 출제 경향성이 생원시 및 진사시의 소과 과목과는 어떻게 다른지, 또한 질문 속 서술 요소와 제설(諸說)의 인용 방식 등은 어떠한 차이점이 보이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7) 박재경은 조선시대 대책의 策題를 ‘제왕의 덕목’ 등 16개의 조목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위 논문(2013), 126-155면 참조.

8) 윤선영(2019); (2020); 「사서오경의 經文을 주제로 한 科詩 및 科賦 시제 소고」, 『동방한문학』 96집(2023).

9) 경문의 범위는 앞선 연구들과의 균형 있는 비교를 위해 사서와 오경으로 한정하며, 구서(九書)의 대문 및 이를 해설한 집주(集註) 등의 해설서와 소주(小註) 등까지도 포함하기로 한다. 또한 관리 선발을 위한 정규 과거 시험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하는 중시(重試) 등의 시험과 초계문신으로서 친시(親試)에서 지은 것 등은 제외하였다.

2. 경의를 주제로 한 책문 개괄

(1) 책제 개괄

조선 시대의 책문을 볼 수 있는 자료는 꽤나 다양하다. 공적인 기록물로는 방목(榜目)이나 왕명으로 편찬된 시제집 및 과문선집, 그리고 조선 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의 사료를 들 수 있으며, 사적 기록물로는 개인 문집과 시권, 시험 대비용 필사본 참고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공사의 각종 기록물 속에서 필자가 수집한 경문 관련 책제는 대략 100여 개¹⁰⁾로, 이는 전체 책제의 약 20% 정도 비율을 차지한다.

물론 현전하는 자료 상의 모든 책제를 검토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대책 관련 참고서 등이 계속해서 발굴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문 관련 책제가 전체 책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다만 다양한 책제 가운데 결코 적지 않은 비율로 출제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초시 및 복시에서 시관이 출제한 집행(執策)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양상이라 하겠다. 이 가운데 조선 전기와 후기의 책문을 각기 예로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찍이 육적(六籍)의 글을 보건대, 그 뜻이 가끔 서로 맞지 않는 것이 있는 듯하니, 내가 그옥이 의심한다. 『주역』에서 말하기를, “역(易)을 지은 자는 근심하는 것이 있도다.” 하고, 또 말하기를, “하늘을 즐거워하고 명(命)을 알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그 말이 서로 어그러지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서경』에서 문왕(文王)을 칭찬하

10) 현재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에서는 학술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의 지원으로 '조선시대 과시(科試) 자료의 DB구축 및 수사문체와 논리구축방식의 변천사 연구'라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본 발표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문 관련 책제 가운데 사료 및 참고서와 관련한 것은 위 과제의 연구원들이 수집한 로우데이터를 기반으로, 필자가 선정한 자료를 사용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여 말하기를, “먹을 겨를도 없이 하여 만민(萬民)을 모두 화평하게 하였다.” 하고, 무왕(武王)을 칭찬하여 말하기를, “팔짱을 끼고 있어도 천하가 다스려졌다.” 하였으니, 그 정치를 하는 것이 같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시경』에서 말하기를, “호천(昊天)이 밝아서 너의 나가는 데에까지 미친다.” 하였으니, 하늘이 검검하여 알기 어려운 것이 아닌데, 또 말하기를, ‘상천(上天)의 일은 소리로 없고 냄새도 없다.’ 하였으니, 하늘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겠는가. 사대부들이 강구하기를 익히 하였을 것이니 각각 자세히 변명하여 대답하라. 내가 친히 보겠다.¹¹⁾

문노라. 현자는 국가의 기용(器用)인데, 『노론』에서 말하기를, “군자는 그릇처럼 하나의 쓰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 하였으며, 한유(漢儒)가 말하기를, “천하의 대기(大器)이다.”라 하였다. 어찌하여 그릇처럼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어찌하여 큰 그릇이라고 이르는 것인가? 자신이 크게 쓸 물건을 잘 보관한다는 설과 기용인 그릇(欵器)으로 삼는 경계는 어떠한 책에 나오며 어떠한 뜻을 비유한 것인가? 제나라의 관중(管仲)은 그릇이 작다고 배척하였으며, 진(晉)나라의 사안(謝安)은 큰 그릇으로 칭송받았으니, 어찌하여 작은 그릇이라고 이르고, 어찌하여 큰 그릇이라고 일컬은 것인가? … (중략) … 제생들은 반드시 평일에 강구하고 연마한 바가 있을 것이니, 모름지기 각기 아는 바를 진술하라. 그 설을 듣고자 한다.¹²⁾

앞의 인용문은 1439년 이전으로 추정되는 책문으로 경문 속에 나오

11) 『세종실록』 86권, 1439년(세종 21) 8월 20일 기사, <嘗觀六籍之文, 其義往往似有牴牾, 予竊疑焉. 易曰, “作易者, 其有憂患乎?” 又曰, “樂天知命, 故不憂.” 其言之相戾, 何歟? 書稱文王曰, “不遑暇食, 用咸和萬民.” 稱武王曰, “垂拱而天下治.” 其所以爲治之不同, 何也? 詩曰, “昊天曰明, 及爾出王.” 則天非冥冥而難知也. 又曰, “上天之載, 無聲無臭.” 則天不可得而測也, 亦將有說乎? 予大夫講之熟矣, 其各詳辨以對, 予將親覽焉.>

12) 『臨軒功令』(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奎11437)) 권75, 「高德柱 답안」, <問, 賢者國家之器用, 而魯論曰, 君子不器, 漢儒曰, 天下大器, 何以謂之不器, 何以謂之大器歟? 藏器之說, 欵器之戒, 著於何書, 而論其何意歟? 齊之管仲, 斥以小器, 晉之謝安, 稱以偉器, 胡然而謂小器, 胡然而謂偉器歟? … (중략) … 諸生必有講磨乎平日矣, 須各悉陳, 願聞其說.>

는 모순된 부분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질문하였다. 『주역』·「계사전(상)」에서 근심을 한다는 말과 근심하지 않는다는 말이 함께 나오는 이유, 『서경』·「무일(無逸)」과 「무성(武成)」에서 문왕과 무왕의 치세 방식을 달리 서술한 이유, 『시경』의 「판(板)」과 「문왕(文王)」에서 하늘의 성질에 대해 각기 다르게 형용한 이유 등을 물었다. 삼경 가운데 동일한 용어 및 상황을 중심으로 하여 얼핏 보기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보이는 문장을 대비하여 질문한 것이다.

뒤의 인용문은 1879년 식년문과초시(전라도)에서 출제된 책문으로 기(器)에 대해 물었다. 그릇에 관한 경문 속 대표 구절인 『논어』·「위정」의 「군자불기(君子不器)」를 비롯하여, 제나라와 진나라의 명재상인 관중과 사안을 두고 각기 소기(小器)와 위기(偉器)로 비유한 것 등 경문의 구절과 역사적 인물, 그릇 관련 문장의 의미와 출처에 대해 질문하였다. 하나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련된 경문을 나열하여 키워드가 가진 다양한 뜻을 상세히 캐물음으로써 경문 속 본의를 이끌어 내는 방식의 질문이다.

이상에서 조선 전·후기의 두 책제를 살펴보았을 때, 형식 및 내용적 측면에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서술한 102개의 책제를 연도순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연번	연도	응시자 성명	시험 종류 및 단계	책문	해당 경서 및 편명	출전
1	1396년	尹祥	미상	五經之文, 乃載道之器	오경 전체	『別洞集』
2	이전	尹祥	미상	異端之說	『論語』, 『孟子』	『別洞集』
3	1396년	尹祥	식년문과(전시)	不逸	『書經』·「無逸」	『別洞集』
4	1411년	權克中	식년문과(전시)	三代之治	『論語』·「爲政」	『東國壯元策』
5	1416년	-	친시	忠孝	『論語』 등	『國朝榜目』
6	1434년	崔恒	식년문과(초시)	扶斯道關異端	『論語』, 『孟子』	『太虛亭集』

연번	연도	응시자 성명	시험 종류 및 단계	책문	해당 경서 및 편명	출전
7	1438년	-	식년문과(초시)	王政損益	『論語』	『國朝榜目』
8	1439년	-	친시	六籍之文	『周易』, 『書經』 등	『世宗實錄』
9	1457년	-	별시(초시)	閏月定四時 등	『書經』·『堯典』 등	『世祖實錄』
10	1465년		별시(초시)	易何自而道	『周易』 전체	『世祖實錄』
11	1474년	楊熙止	식년문과(초시)	關異端	『論語』, 『孟子』	『大峯集』
12	1476년	-	별시(초시)	知人	『論語』·『子罕』	『成宗實錄』
13	1494년	-	식년문과(초시)	天地人	『周易』·『繫辭 傳(上)』	『成宗實錄』
14	1495년	李穆	증광문과(초시)	天人	『書經』·『洪範』	『李評事集』
15	1497년	-	별시(초시)	九經之治	사서오경 전체	『國朝榜目』
16		金安國	미상	五百年王者興	『孟子』·『公孫 丑(下)』	『慕齋集』
17	1503년 이전	金安國	미상	經傳史記, 古聖人之事, 多有可疑	경서 전체	『慕齋集』
18		金安國	미상	聖賢述作	경서 전체	『慕齋集』
19	1503년	金安國	별시(초시)	書之垂法	『書經』 전체	『慕齋集』
20	1526년	金義貞	별시(초시)	好惡是非	『孟子』·『公孫 丑(上)』	『潛庵逸稿』
21	1531년	李浚慶	식년문과(초시)	道學之傳	경서 전체	『東臯遺稿』
22	1540년	-	별시	道學之傳	경서 전체	『中宗實錄』
23	1546년	朴全	증광문과(초시)	忠孝	경서 전체	『松坡逸稿』
24	1558년	吳健	식년문과(초시)	爲學之道	『中庸』 20장	『德溪集』
25	1561년	崔昱	식년문과(초시)	誠意, 正心	『大學』 경1장	『簡易集』
26	1545-	曹好益	미상	天地之理	경서 전체	『芝山集』
27	1609 사이	曹好益	미상	人物之生, 有偏全不同	『周易』·『繫辭 傳(上)』	『芝山集』
28	1573년 이후	權宇	미상	大學	『大學』 전체	『松巢集』
29	1579년	-	식년문과(전시)	六蔽	『論語』·『陽貨』	『燃藜室記述』
30	1583년	呂大老	거창별시	太極道	『周易』·『繫辭 傳(上)』	『鑑湖集』
31	1583년	-	정시	制治保邦	『書經』·『周官』	『燃藜室記述』
32	1584년	-	별시(전시)	推是心行是政	『孟子』·『梁惠 王(상)』 등	『國朝榜目』

연번	연도	응시자 성명	시험 종류 및 단계	책문	해당 경서 및 편명	출전
33	1586년	-	별시(전시)	六經	육경 전체	『國朝榜目』
34	1591년	-	별시(전시)	洪範	『書經』·「洪範」	『國朝榜目』
35	1602년	李好閔	별시(초시)	治平之道	『中庸』, 『大學』	『五峯集』
36	1605년	-	별시(초시)	吾王庶幾無疾病	『孟子』·「梁惠王(下)」	『國朝榜目』
37	1609년	-	증광문과(초시)	愼終于始	『書經』·「太甲下」	『國朝榜目』
38	1628년	-	별시(전시)	爲治在順民心	『孟子』, 『書經』 등	『國朝榜目』
39	1633년	-	증광문과(전시)	六經宗旨	육경 전체	『國朝榜目』
40	1666년	-	온양별시	巡狩	『孟子』·「梁惠王(下)」	『國朝榜目』
41	1669년	-	식년문과(초시)	經術試士	경서 전체	『國朝榜目』
42	1735년	-	증광문과(초시)	遠慮	『論語』·「衛靈公」	『科儷』
43	1737년	-	별시(초시)	夜氣	『孟子』·「告子(上)」	『科儷』
44	1763년	-	증광문과(초시)	七情	『孟子』·「盡心(下)」	『國朝榜目』
45	1763년	-	증광문과(복시)	治天下當如禹之治水	『尙書精義』	『國朝榜目』
46	1776년	-	별시(초시)	一中	『周易』, 『書經』 등	『無名子集』
47	1777년	-	정시(전시)	信	사서오경 전체	『弘齋全書』
48	1777년	金熙稷	증광문과(초시-경상좌도)	名	『論語』·「衛靈公」 등	『臨軒功令』 4권
49	1777년	黃珪	증광문과(초시-전라좌도)	鳶魚	『詩經』·「大雅·旱麓」	『臨軒功令』 4권
50	1777년	李敏采	증광문과(초시-충청우도)	論語	『論語』 전체	『臨軒功令』 4권
51	1783년	-	증광문과(복시)	言者, 身之文也	『春秋左氏傳』·「僖公」	『文武·經義·辨類』
52	1783년	-	정시	知人	『書經』·「皐陶謨」	『弘齋全書』
53	1788년	張漢豊	식년문과(초시)	禹貢	『書經』·「禹貢」	『臨軒功令』 9권

연번	연도	응시자 성명	시험 종류 및 단계	책문	해당 경서 및 편명	출전
54	1788년	柳火+篤	식년문과(초시)	大學	『大學』 전체	『臨軒功令』 9권
55	1788년	羅東倫	식년문과(초시- 충청좌도)	仁知之樂	『論語』·「雍也」	『臨軒功令』 9권
56	1788년	宋文煥	식년문과(초시- 충청우도)	四書三經	사서삼경 전체	『臨軒功令』 9권
57	1788년	柳光灑	식년문과(초시- 전라좌도)	詩經	『詩經』 전체	『臨軒功令』 9권
58	1788년	孫鎭一	식년문과(초시- 경상우도)	七月之詩	『詩經』·「邠風」 ·七月」	『臨軒功令』 9권
59	1788년	權漢寅	식년문과(초시- 원춘도)	大學	『大學』 전체	『臨軒功令』 9권
60	1788년	朴龜錫	식년문과(초시- 경상좌도)	義	『孟子』, 『論語』 등	『臨軒功令』 9권
61	1788년	金乃默	식년문과(초시- 평안도 청남)	經傳	경서 전체	『臨軒功令』 9권
62	1788년	李聖車	식년문과(초시- 함경남도)	大學	『大學』 전체	『臨軒功令』 9권
63	1789년	洪宗涉	식년문과(복시)	詩三百	『論語』·「爲政」 등	『臨軒功令』 10권
64	1790년	鄭璋	식년문과(초시- 경상좌도)	易學啓蒙	『周易』·「繫辭 傳(上)」	『臨軒功令』 14권
65	1790년	-	증광문과(초시)	五行	『書經』·「洪範」	『文武科殿試 榜目』
66	1794년	李游誠	식년문과(초시- 전라좌도)	不動心	『孟子』·「公孫 丑(上)」 등	『臨軒功令』 17권
67	1795년	李英發	식년문과 (생회과)	易	『周易』 전체	『臨軒功令』 17권
68	1800년	-	친림춘당대추도 기	五福	『書經』·「洪範」	『臨軒功令』 1권
69	1801년	-	증광문과(초시)	名教	경서 전체	『文武科殿試 榜目』
70	1801년	-	증광문과(복시)	動靜	경서 전체	『文武科殿試 榜目』
71	1809년	-	증광문과(초시)	皇極	『書經』·「洪範」	『科儷』

연번	연도	응시자 성명	시험 종류 및 단계	책문	해당 경서 및 편명	출전
72	1813년	柳協元	증광문과(초시)	富	『書經』·『洪範』	『臨軒功令』 25권
73	1818년	慶翊斗	식년문과(초시 -강원도)	堯典	『書經』, 『堯典』	『臨軒功令』 31권
74	1822년	李儼行	식년문과초시	中	『中庸』 5장	『臨軒功令』 31권
75	1822년	李蓄重	식년문과(초시 -강원도)	經	경서 전체	『臨軒功令』 31권
76	1822년	李彙復	식년문과(초시 -경상좌도)	知行	『論語』, 『中庸』 등	『臨軒功令』 31권
77	1822년	金相履	식년문과(초시 -경상우도)	義利	『論語』·『里仁』	『臨軒功令』 31권
78	1822년	徐燭中	식년문과(초시 -공청우도)	富	『書經』·『洪範』	『臨軒功令』 31권
79	1824년	李明翼	식년문과(초시 -공청좌도)	無逸	『書經』·『無逸』	『臨軒功令』 33권
80	1824년	鄭致默	식년문과(초시 -공청우도)	仁	『論語』, 『孟子』	『臨軒功令』 33권
81	1824년	權復準	식년문과(초시 -경상좌도)	心性	『書經』, 『論語』 등	『臨軒功令』 33권
82	1824년	南陽泰	식년문과(초시 -함경북도)	尙書	『書經』 전체	『臨軒功令』 33권
83	1827년	-	증광문과(초시)	壽	『中庸』 17장	『文武科殿試 榜目』
84	1835년	-	증광문과(초시)	五經	오경 전체	『文武科殿試 榜目』
85	1835년	-	증광문과(복시)	五穀者, 種之美者	『孟子』 「告子(上)」	『文武科殿試 榜目』
86	1844년	-	증광문과(초시)	玉	『論語』·『公治 長』 등	『文武科殿試 榜目』
87	1844년	-	증광문과(초시)	春秋綱目	『春秋』 전체	『文武科殿試 榜目』
88	1848년	-	증광문과(초시)	易有三易	『周易』 전체	『文武科殿試 榜目』
89	1848년	-	증광문과(복시)	有物有則	『詩經』·『蕩之 什·烝民』	『文武科殿試 榜目』

연번	연도	응시자 성명	시험 종류 및 단계	책문	해당 경서 및 편명	출전
90	1854년	權膺懋	식년문과(초시- 충청우도)	博約	『論語』·「雍也」	『臨軒功令』 61권
91	1854년	李能儼	식년문과(초시- 경상좌도)	陰陽	『周易』·「繫辭 傳(上)」	『臨軒功令』 61권
92	1854년	高龍鎭	식년문과(초시- 전라좌도)	易	『周易』 전체	『臨軒功令』 61권
93	1858년	許稷	식년문과(초시- 경상도)	五福	「書經」·「洪範」	『臨軒功令』 63권
94	1859년	申光軾	秋到歸科	詩經	『詩經』 전체	『臨軒功令』 63권
95	1859년	-	증광문과(초시)	仁	『論語』·「里仁」 등	『文武科殿試 榜目』
96	1865년	李晚櫓	식년문과(초시)	禮	경서 전체	『臨軒功令』 72권
97	1865년	馬寅結	식년문과(초시- 함경도)	朋友	『論語』, 『孟子』 등	『臨軒功令』 72권
98	1865년	미상	식년문과(초시- 미상)	儒	『論語』·「雍也」 등	『臨軒功令』 72권
99	1865년	姜奎會	식년문과(초시- 미상)	河圖洛書	『周易』	『臨軒功令』 72권
100	1874년	-	증광문과(복시)	春秋	『春秋』 전체	『文武科殿試 榜目』
101	1879년	具健喜	식년문과(초시)	敬	경서 전체	『臨軒功令』 75권
102	1879년	高德柱	식년문과(초시- 전라도)	器	『論語』·「爲政」	『臨軒功令』 75권

〈표1. 경문의 뜻을 주제로 하는 책제 목록〉

위 표를 통해 경문 관련 책제를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상술하였듯이,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 상에서 보여지는 전체 책제 대비 경문 관련 책제의 비율은 대략 20% 내외로 볼 수 있다.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확실한 것은 시·부에서의 출제 비율보다는 비교적 낮은 비율이라는 점이다. 소과 진사시 및 대과 등에서 출제된 시·부에

서의 경문 관련 시제는 소과에서 약 31%, 대과에서 57% 등 과반을 상회할 정도로 꽤 높은 비율로 출제되었다.¹³⁾ 이는 앞서 밝힌 것처럼 책문은 시무와 현안을 비롯하여 워낙 다양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결과라 할 수 있다.

시험의 종류로 구분하여 말해보자면, 식년시와 증광시는 거의 비슷한 비율로 출제했음을 알 수 있다. 3년마다 정기적으로 보는 식년시와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치르는 증광시의 경우 시험의 실행 목적은 달랐으나, 이것이 책제의 내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18세기 이전에는 별시 등의 시험에서도 간혹 출제되었으나, 19세기 이후로는 거의 식년시와 증광시에서만 출제되는 경향성을 보인다.

경문 관련 책제는 조선 전기부터 꾸준히 출제되었으며, 조선 전기에는 집책(執策)과 전책(殿策) 모두에서 비슷한 비율로 출제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조대 이후로 전시에서 경문 관련 책제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결과적으로, 시관이 출제한 집사책이 왕께서 친히 출제한 전책보다 경문 관련 책제의 비중이 높았다.

이는 조선 후기 각종 문과의 최종시에서 대책 이외의 표·전, 잠·명·송 등 고시 과목이 다양화되면서 대책의 고시 비율 자체가 낮아진 상황¹⁴⁾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답안의 길이가 길고 내용이 어려워 채점이 쉽지 않았던 대책은 즉일방방(卽日放榜)의 방식으로 치러진 별시나 정시 등의 고시 과목으로는 선호되지 않았던 것이다.

집책 가운데에는 한성시보다는 향시에서 거의 대부분이 출제된 점을 볼 수 있었다. 정조~고종대 실행된 과거 시험의 시제와 모범 답안을 수록한 과문선집 『임헌공령』을 살펴보면, 각 권차마다 문체별로 나누어 과

13) 윤선영(2023), 90면 참조.

14) 김광년(2022), 197~200면 참조.

문을 수록하고 있다. 특히 1788년 식년문과초시 일·이소를 비롯하여 9개의 지방에서 출제된 11개의 책제 가운데, 무려 10개가 경문 관련 책제임이 확인된다. 향시에서 경문 관련 책제의 높은 출제 비중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점이다.

인용된 경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자면, 경(敬), 인(仁), 신(信) 등 하나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여 여러 경서의 경문을 인용하거나, 경서 자체를 주제로 한 책제들이 자주 출제되었다. 키워드 중심의 시제는 사서의 나·시·부에서도 자주 보이는 출제 유형이나, 경문을 읽음으로써 얻게 되는 효용에 관한 내용은 대책에서 주로 보이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소과의 과목들이 경문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의 문제를 출제한 것에서 나아가, 이를 말미암아 경세(經世)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묻고자 한 대책의 출제 방향성과 연관되는 것이라 하겠다.

하나의 경서를 중심으로 출제된 책제의 경우, 비교적 사서와 오경에서 골고루 출제되었다. 이는 그만큼 출제 비중이 압도적인 경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소과에서 출제 비중이 낮은 편인 『대학』, 『주역』 등에서도 적지 않은 비율로 출제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생원시의 사서의·오경의에서 『논어』와 『예기』, 시·부에서 『맹자』와 『시경』이 각기 사서와 오경 중 가장 많이 출제된 것과는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었다.

그러나 『논어』의 위경, 『서경』의 「홍범」, 『시경』에서 「문왕」 등 대아(大雅)에 속하는 시들, 『주역』의 「계사전(상)」 등의·의와 시·부 모두에서 높은 비율로 출제된 편장들은 대책의 시제에서도 자주 출제되었다. 역시나 경문의 다양한 구절 가운데서도 과거의 시제로 쓸 만한 교훈적 내용이 담긴 편장들은 그 과목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자주 인용되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소과 시제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여기에서는 경문 관련 책제가 소과에서 출제된 시제들과 형식적인 면 또는 내용적인 면에서 어떠한 공통점 및 차이점이 있는지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사서의 과목의 경우 자의(字意) 및 개념어에 관한 의(疑), 자구문장의 논리에 관한 의(疑), 경문 내외의 차이에 관한 의(疑), 총경(總經) 및 경의(經義)에 관한 의(疑) 등으로 시제의 유형을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¹⁵⁾, 경책(經策) 또한 비슷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유사한 경문 구절을 다른 시제를 대상으로 하여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두 인용문을 먼저 보도록 하자.

【策】 문노라. 500년이 되면 반드시 왕이 될 만한 자가 나온다 하였는데, 그 사이에 반드시 세상에 이름난 자가 있음은 천지의 운수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삼대 이상에서는 손꼽아 셀 수 있으며 차질이 없는데, 진(秦)·한(漢) 이하에서 마땅히 500년만에 나온 왕이 될 만한 자가 누구인가? 그 사이에 세상에 이름난 자라면 또한 후직(后稷)과 설(契), 이윤(伊尹), 내주(萊州), 여망(呂望), 산의생(散宜生)의 무리인가? 왕이 될 만한 자가 만일 500년의 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세상에 이름난 사람 또한 후직이나 설 등의 무리에 비할 바가 아닌즉, 천지의 운수가 여기에 이르러 끊어진 것인가? 진나라 이후에 1000여 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염락(濂洛)의 제유가 나왔으니 삼대 이상의 세상의 이름난 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하나 또한 세상에 도를 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어찌서인가? 맹씨(맹자)의 말은 징험하는 바가 없는 것인가? 제생들이 이를 강구하기를 청하노라.¹⁶⁾

15) 윤선영(2019), 87면 참조.

16) 金安國, 『慕齋集』 권10, 〈問. 五百年必有王者興, 其間必有名世者, 天地運數然也. 三代以上, 可歷數而無差矣. 秦漢以下, 可當五百之數者, 誰歟? 其間名世者, 亦可比於稷·契·伊·萊·呂望·散宜生之屬歟? 王者若無當五百之數者, 名世之人, 亦無稷契之類之比, 則天地運數至此而熄斷歟? 秦後千有餘年, 始有濂洛諸儒, 足以比肩於三代以上名世之人, 而又不能行道於世, 何也? 孟氏之言, 無乃不驗歟? 請與諸生講之.〉

【四書疑】 문노라.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요순에서 탕임금에 이르기까지 500여 년의 시간이 걸렸고 탕임금에서 문왕에 이르기까지 500여 년의 시간이 걸렸으며 문왕에서 공자에 이르기까지 500여 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였다. 무릇 하늘이 聖人을 탄생시키기에 반드시 500년이라는 시간으로써 기한을 둔 까닭은 무엇인가? 그 아래에 또한 말하기를, “공자 이래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100여 년이 걸렸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공자로부터 100여 년 뒤에 맹자가 있었으니 이는 500년이라는 기한을 채우지 않았는데도 성인이 다시 나온 것이다. 이 까닭은 무엇인가? 맹자로부터 500여 년 후에 다시 성인이 없었으며 150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정자와 주자가 있었다. 그렇다면 하늘이 성현을 탄생하심은 반드시 500년이라는 기한으로써 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先儒께서 말씀하시기를, ‘黃河는 천년에 한 번씩 맑아진다.’라고 하였으니 聖人은 천년에 한 번 탄생하는 것으로 기한 삼을 수 있는가? 500년의 기한과 같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 그 설을 듣기를 원한다.¹⁷⁾

위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김안국(金安國, 1478-1543)의 문집인 『모재집(慕齋集)』에 실려 있는 ‘五百年王者興’을 주제로 한 책문이다. 위 답안에 대해 별다른 부기(附記)가 없어, 시험 연도 및 시종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김안국의 문과 입격 연도가 1503년이며 『모재집』에 1503년 별시 책제가 기록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그 이전에 출제된 책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아래는 1779년 식년감시 초시(홍충우도)에서 출제된 사서의 문제로, 정조대의 시제를 기록한 시제집 『경외제록(京外題錄)』에 수록되어 있다.

17) 『京外題錄』(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奎9943)) 小科題, 〈問. 孟子曰, “由堯·舜至於湯, 五百有餘歲, 由湯至於文王, 五百有餘歲, 由文王至於孔子, 五百有餘歲.” 夫天之生聖, 必以五百歲爲期者, 何歟? 其下又曰, “由孔子以來至于今, 百有餘歲.” 然則由孔子百有餘歲, 而有孟夫子, 此則不滿五百歲之期, 而聖人復生者, 何歟? 由孟子以後五百歲, 更無聖人, 及至千五百年之後, 始有程·朱, 然則天之生聖賢, 不必以五百歲爲期歟? 先儒云, ‘黃河千年一清.’ 而聖人生千一之期歟? 五百之期不同, 何歟? 願聞其說.)

두 시제들은 모두 『맹자』·「진심(하)」에서 성인이 500여 년의 간격을 두고 나온다고 한 구절을 중심으로 하여, 성인이 이 세상에 출현하는 기간이 일정하지 않음에 대한 의문점을 드러낸 질문들이다. 경문 속 내용과 현실 간의 차이를 지적한 유형에 속한다. 두 질문 모두 삼대 이상에서는 500여 년의 간격이 어느 정도 지켜진다고 서술하였으며 그 이후의 인물들의 출현 시기를 의문으로 삼고 있는데, 책문에서는 진한 이래로, 사서의에서는 공자 이래로 그 기준점이 약간 다른 점 이외에는 같은 요지의 질문임을 볼 수 있다. 하나의 인용문을 더 살펴보도록 하자.

【策】 문노라. 솔개와 물고기는 생물 가운데 미미한 것인데, 자사께서 특별히 그 상하에 이치가 유행하여 환히 드러나는 뜻을 말하였으니 크다고 할 만하다. 솔개와 물고기가 낳는 것은 무엇이며 낳는 까닭은 무엇인가? 솔개와 물고기가 날고 뛰어오르는 곳은 어디이며, 날고 뛰는 까닭은 무엇인가?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자면, 낳는 것과 낳는 까닭은 마땅히 어떻게 구분하여 말할 수 있는가? 사람의 일로 미루어 보자면 날고 뛰는 것과 날고 뛰는 까닭은 마땅히 어떻게 명확히 말할 수 있는가? 솔개가 날 수 있으나 떨어 수 없으며, 물고기가 떨어 수 있으나 날 수 없음은 이(理)라고 이르는가? 기(氣)라고 이르는가? 비은(費隱)으로써 솔개와 물고기의 날고 뛰를 말하자면, 어떤 것이 비이고 어느 것이 은인가? 이기(理氣)로써 솔개와 물고기를 말해보자면, 날고 뛰는 것은 어떤 것이 이이고 어느 것이 기인가? 이미 『중용』에서 솔개와 물고기를 말하였으니, 솔개와 물고기가 『중용』에 묘하게 부합되는 까닭을 들을 수 있겠는가? ... 중략 ... 만일 사람으로 하여금 솔개와 같이 날아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와 같이 뛰어 연못에서 노닐어 각기 그 마땅함을 얻어 사람됨에 있어 부끄러움이 없게 하고자 한다면 그 도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그 자세한 바를 듣기를 원한다.¹⁸⁾

18) 『臨軒功令』 4권, 〈問. 鳶魚物中之微細, 而子思特言其上下察流行昭著之義, 可謂大矣. 鳶魚之生者何, 而所以生者, 何歟? 鳶魚之飛躍者何, 而所以飛躍者何歟? 譬於人身, 則生與所以生者, 當何以分言歟? 推之人事, 則飛躍與所以飛躍者, 當何以明言歟? 鳶飛而不能躍, 魚躍而不能飛, 謂之理歟, 謂之氣歟? 以費隱言鳶魚之飛躍, 何者爲費? 何者爲

【四書疑】 문노라. 『중용』에서 말하기를, “솔개는 날아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뛰는다.”라고 하였다. 솔개와 물고기는 비은(費隱)과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솔개와 물고기로 이를 비유함에 미친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늘에 있는 생물은 한 마리의 솔개뿐만이 아니요, 땅에 있는 생물 또한 한 마리의 물고기뿐만이 아닌데, 유독 솔개와 물고기로써 말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¹⁹⁾

위는 1777년 증광문과 초시(전라좌도)와 1777년 증광감시 초시(황해도)에 각기 출제된 대책과 사서의 시제이다. 같은 연도에 출제된 소과와 대과 문제로, 같은 경서와 경문을 대상으로 하여 향시에서 출제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어 흥미롭다. 시제는 『중용』 비은장(費隱章)에서 『시경』 「대아(大雅)·한록(旱麓)」의 시를 인용한 구절인 연비어약(鳶飛魚躍)에 관해 묻는 문제로, 정자가 『중용장구』 제12장에서 이를 풀이하며 “긴요하게 사람을 위해 일러준 곳으로 생기가 넘친다[此喫緊爲人處, 活潑潑地].”고 한 주석으로 더욱 유명하다. 이는 특히 사서의 과목에서 많은 문제에 중복 출제된 구절로, 자구 및 문장의 논리에 관한 의문점을 묻는 유형이다.

시제에서 묻는 바는 주로 솔개와 물고기로 비유한 천지의 미물이 비은(費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만물 가운데 왜 하필 솔개와 물고기로 비유한 것인가로 요약된다. 동일한 요지의 질문에서 대책은 이를 이기(理氣)와 연관시켜 보는 등 더욱 심오한 내용을 묻고 있으며, 사람됨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고자 하는 도는 무엇인지로 마무리하고 있다.

隱歟? 以理氣言鳶魚之, 飛躍何者爲理? 何者爲氣歟? 旣以鳶魚言於中庸, 鳶魚之妙合於中庸者, 可得聞歟? … 중략 … 如欲使人若鳶之飛而戾天, 如魚之躍而在淵, 各得其宜, 無愧於爲人, 其道何由? 願聞其詳.)

19) 『臨軒功令』 4권, 〈問, 中庸曰, “鳶飛戾天, 魚躍于淵”, 鳶魚何關乎費隱, 而及以鳶魚喻之者, 何歟? 在天之物, 非一鳶而已, 在地之物, 亦非一魚而已, 而獨以鳶魚言之, 何歟?〉

위의 인용문들을 상기해 볼 때, 경책과 사서의 과목의 시제는 형식적인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전체적으로 경책의 경우는 여러 경서들을 인용한 문제들이 대부분인 반면, 사서는 많아야 두 책 정도를 비교하는 수준이며, 한 책 내에서 물은 경우가 훨씬 많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는 특정 개념어를 위주로 한 시제에서 더욱 확연한 양상이었다.

이러한 차이점은 두 과목간 시제의 길이 차이와도 연관되는 부분인데, 사서의 시제의 경우는 질문이 비교적 짧다 보니 대책에서 물은 요지를 축소하여 서술한 느낌이 있으며, 반대로 경책의 경우에는 물어보는 질문의 수가 많고 내용이 상세한 점, 앞뒤로 출제자의 생각이 들어간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보인다. 지면의 한계로, 본문에서 전부 다루지는 못했으나, 개념어 및 자의(字義)를 물은 유형, 여러 경서의 구절을 인용하는 총경(總經)의 유형에서도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3. 책문의 서술 요소와 선유설 인용

(1) 책문 서술 요소 - 전책과 집책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여기에서는 책문을 구조화하여, 각 단계마다 서술하는 요소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것이 전책과 집책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위주로 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선 인용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서론부〉

【殿策】 왕은 말하노라. 신(信)이란 군주의 큰 보배이다. 인의예지

의 사덕(四德)의 바탕이 되고, 모든 선(善)의 주인이다. 사람이면서 믿음이 없으면 사람일 수 없으며 나라에 믿음이 없다면 나라가 될 수 없으니, 그 용도가 어찌 크지 않겠느냐. “그 믿음이 사귀는 듯하다.”는 말은 『주역(周易)』에 수록되어 있고 “믿음을 돈독히 하여 의리를 밝히라.”는 것은 『서경(書經)』에 보이는 말이니, 이는 임금노릇 하는 자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신(信)에 두 명령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춘추좌전』[夸史]을 일컬음이고, ‘왕의 신실한 신하’라는 것은 대아(大雅)에서 면려한 바이니, 이는 또한 남의 신하 된 자의 신(信)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執策】 문노라. 『논어』에서 “인한 자는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한다.”고 하였으니, 산수를 좋아함은 진실로 인지(仁知)의 일이다. 그러나 옛 사람들을 헤아려 보건대 논의할 만한 점이 많다. 인과 지의 지극함은 공·맹만한 이가 없거늘, 천하를 두루 떠돌아다니고 제(齊)나라와 양(梁)나라에서 유세하는 동안 어떠한 산이나 물을 한 번 완상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무슨 까닭인가?

〈본론부〉

【殿策】 공자는 건괘(乾卦) 구이효(九二爻)의 해석에서 “일상의 말을 믿음 있게 하라.”고 하였으며, 맹자는 대인(大人)의 일을 거론하면서 “말은 믿게 하기를 기필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동일한 믿을 신(信)자(字)인데, 전성과 후성의 말이 동일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이냐? 군병과 식량은 버려도 신(信)은 버릴 수 없다고 하였으며, 황금이나 보옥이 보물이 아니라 오직 신이 보물이라고 하였는데, 신을 행하는 도리란 이처럼 급한 것이냐? 유우씨(有虞氏)는 백성에게 신을 보이지 않았는데 백성들은 그를 믿었고, 탕은 억조 백성에게 신을 현양하였으며, 주나라는 지극히 성신하였으니, 아, 당우(唐虞)는 더할 수 없이 훌륭하고 삼대 시대는 논의할 여지가 없지만, 후세로 내려오면서도 신(信)을 제대로 실천한 이들이 역시 많았다. 제(齊) 나라 환공(桓公)과 진(晉) 나라 문공(文公)은 인(仁)을 가장한 패왕이었으나, 중국의 맹주가 되어 조가(曹柯)의 약속을 마침내 실천하였고, 패업을 수행하였으되 원(原)을 정벌하는 이익을 탐하지 않았으며, 위(魏) 나라 문후(文侯)는 전국

시대의 참람한 제후였지만 우인(虞人)과의 기약을 잊지 않았고, 상양(商鞅)은 신불해(申不害), 한비(韓非)와 같이 참각(慘刻)한 무리이지만 오히려 삼장목(三丈木)을 옮기는 신의를 보였다. 이들은 모두 신의를 실천하는 도리를 잃지 않아서 의논할 만한 점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 어떤 이는 무덤 앞에 검을 매달아 처음 가졌던 마음을 실행한 이도 있고, 어떤 이는 기둥을 안고 신의를 잃지 않은 이도 있었는데, 이들은 진실로 필부(匹夫)의 신의이나 세상의 도리에 보탬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執策】 안연은 아성의 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증삼은 도를 전수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좋아함이 단지 단표(簞瓢)와 누항(陋巷), 폐의(弊衣)와 경야(耕野)에 있고 산의 승경과 물의 아름다움에 있지 않으니, 과연 이 두 사람은 인지(仁知)가 미진하다고 할 수 있는가? 상산(商山)의 사호(四皓)나 칠리탄(七里灘)의 엄릉(嚴陵)은 세상을 피해 높이 숨어 모두 산수로 귀의하였으니, 또한 인지의 좋아함을 얻은 것인가? 도연명은 일찍이 동리로 돌아가 남산을 마주 대하고 유연한 흥취가 있었으며 백낙천은 뒤늦게 명성을 사양하여 향산(香山)에 누워 팔절의 여울을 완상하였으니 과연 모두 산수에 묘하게 부합하여 인지의 좋아함을 깊이 얻은 것인가? 사마천이 진농(秦隴)에서 노닐고, 소자유가 종남산을 관광하여 산수의 뛰어난 경치를 가슴 속에 가득 담았으니 또한 모두 진실로 인지에 부족함이 없으며 그 좋아함을 만난 것인가?

〈결론부〉

【殿策】 대체로 신이라는 한 글자는 바로 위아래를 유지하고 인심을 굳게 맺는 긴요한 도리이다. 군주는 이것으로 아래를 거느리고 신하는 이것으로 위를 섬기면 위에서는 의구심이 없으며 아래서는 흐트러지지 않게 된다. 국가가 태평한 시절에는 원수(元首)가 고굉(股肱)에 의지하고,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는 수족이 머리를 감싸게 된다. 이것이 옛 성왕이 장구한 치안을 유지한 계책이다. 어쩌다 근세에 들어 인심은 곱지 않고 습속은 더욱 조작되어 군신 사이에 정리가 믿기지 않고 봉우끼리는 의심하는 풍조가 굳어져, 위는 아래를 믿지 않고 아래는 위를 믿지 않으니, 이것은 과연 인도함이 밝지 못하여 그러한 것이냐? 아니면 혹

시 세도의 변화가 더욱 낮아져 그러한 것이냐? 어떻게 하면 위로는 군주로부터 아래로는 필부와 서인에 이르기까지 신의가 중심에서 우러나 믿음의 잭어맨 것 같아서, 인심은 나날이 충후하게 되고 치도는 모두 빛나는 곳에 이르게 되겠느냐? 제생(諸生)은 속에 쌓인 것을 죄다 기울여 각기 대책편에 논저하라. 내 친히 열람하리라.²⁰⁾

【執策】 오늘날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는 자는 또한 많이 있다. 하나의 산과 물의 승경을 보고 문득 몸을 일으켜 그곳에 임하고, 하나의 산과 물의 승경을 듣고서 천리를 멀다 여기지 않고 두루 유람하는 발자취가 있다. 꽃 피는 아침부터 달뜨는 저녁까지 그 사이에서 시를 읊조리고 대나무 지팡이와 짚신 신고서 오르내리며 묵으니 이는 인지의 좋아함을 만나 그 즐거움을 즐기는 것인가? 어찌하여야 산에 오르지 않고 물가에 임하지 않고서 인이 더욱 돈독해지고 지가 더욱 높아질 수 있는가? 산에 있지 않고 물가에 있지 않으면서 그 인을 좋아하고 그 지를 좋아할 수 있는가? 제생들의 변론을 듣기를 원한다.²¹⁾

20) 『홍재전서』 48권, 「策問·信」. 〈王若曰, 信者, 人君之大寶也. 於四德爲地, 於衆善爲主. 人而無信, 則不可以爲人. 國而無信, 則不可以爲國, 其爲用顧不大歟? 厥孚交如, 義易揭訓, 惇信明義, 壁經駕說, 斯可謂君人之信歟? 信無二命, 夸史所稱王之蓋臣, 雅詩攸勉, 亦可謂人臣之信歟? 夫子釋九二之爻曰, 庸言之信, 孟子論大人之事曰, 言不必信, 同一信字, 而前後聖立言之不同, 何歟? 兵食之可去, 而信不可去, 金玉之不寶, 而惟信是寶, 則行信之道, 若是其急歟? 有虞氏未示信於民而民信之, 湯之彰信兆民, 周之底至齊信, 猶歟! 唐虞尙矣, 三代無容議焉, 降及後世, 能踐者亦多. 齊桓晉文, 假仁之霸主也, 而狎主夏盟, 竟踐曹柯之約, 能修霸業, 不貪伐原之利, 魏文戰國之僭侯, 而無忘虞人之期, 商鞅申韓之慘刻, 而猶示丈木之信, 則茲皆不失於行信之道, 而無可議者歟? 或有掛劍, 而以酬初心者, 或有抱柱, 而不失其信者, 斯固匹夫之信, 而亦可有補於世道歟? 大抵信之一字, 乃所以維持上下, 固結人心之要道也. 人君以是而御下, 人臣以是而事上, 上無疑阻, 下不泮渙. 當國家升平之日, 元首倚於股肱, 逮天步艱難之時, 手足捍其頭目, 此古昔聖王久安長治之謨也. 夫何近世人心不淑, 俗習滋偽, 君臣之間, 情意未孚, 朋友之際, 疑貳成風, 上不信下, 下不信上, 是果由於導率之不明而然歟? 抑或由於世變之益下而然歟? 何以則上自人君, 下至匹庶, 信由中出, 有孚攣如, 人心日歸於忠厚, 治道可臻於咸熙歟? 諸生罄盡底蘊, 其各悉著于篇. 予將親覽焉.〉 책문의 해석은 『(국역)홍재전서』(민족문화추진회, 2008)의 번역을 참고하였다.

21) 『임헌공령』 권9. 〈問. 仁者樂山, 知者樂水, 山水之樂, 是固仁知之事, 而探諸古人, 則多有可議者矣. 仁之盡·知之至, 莫若孔·孟也, 而輒環天下, 遊遍齊梁之日, 未聞一玩於某山某水, 何歟? 顏淵亞聖之姿也, 曾參傳道之人也, 其樂只在於簞瓢陋巷弊衣耕野, 而不在於山之勝·水之麗, 果可以此謂二子仁知之未盡耶? 商山四皓, 七里巖陵, 避世高蹈, 皆以山水爲歸, 則亦得仁知之樂歟? 淵明早歸東里, 對南山悠然之趣, 樂天晚謝聲名,

위는 1777년(정조 1) 정시에서 ‘신(信)’이라는 개념어와 관련하여 출제된 전책과, 1788년(정조 11) 식년문과 초시(충청좌도)에서 『논어』·「용야」의 ‘仁者樂山, 知者樂水’와 관련한 출제된 집책이다. 책문 속 서술 요소를 비교해 보기 위해, 위 책문들을 서론부와 본론부, 결론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서론부에서는 각기 왕약왈(王若曰), 문(問)이라는 투식어로 시작하며, 시제로 출제하고자 하는 내용 관련한 대표 경문을 서술한다. 전책의 경우는 경문을 인용하기 전에 주로 시제를 불러일으키는 모두 서술을 주로 하는데, 이는 주로 왕 자신에 대한 자성(自省), 핵심 용어의 원론적 개념 정의 등을 서술한다. 반면 집책의 경우는 투식이 다음에 바로 관련 경문과 의문스러운 지점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각각의 질문에는 ‘何歟’라는 의문사를 주로 사용하는데, 조선 전기의 책문들에는 ‘何耶’도 혼용하였으나, 중기 이후부터 ‘何歟’로 정착되는 모습을 보인다. ‘歟’자는 경전에서 거의 ‘與’자와 주로 통하며 『예기』·「祭義」주에 ‘與者, 不執定之辭.’라고 되어 있다. 즉, ‘歟’자는 마음에 의구심이 있으나 집착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강한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응시자의 의중을 넉넉히 물어보는 시험의 질문에 적합하다고 하겠다.²²⁾

본론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질문에 대한 의문점을 이어가며 구체화하는데, 집책의 경우 서론부에 제시한 경문 1을 보완할 수 있는 경문

臥香山八節之灘, 果皆妙契山水, 而深得仁知之樂歟? 馬遷秦隴之遊, 子由終南之觀, 其於山水勝概, 包括胸襟, 亦皆眞無歉於仁知, 而寓其樂歟? 今之樂山樂水者, 蓋亦多矣, 見一山一水之勝, 則輒起興而臨之, 聞一山一水之勝, 則不遠千里期遍遊覽之跡. 花朝月夕, 嘯詠其間, 竹杖芒鞋, 陟降信宿, 是果寓仁知之樂而樂其樂歟? 何以則山不登·水不臨, 而仁益敦·知益高歟? 不于山·不于水, 而樂其仁樂其知歟? 願與諸生下之.)

22) ‘歟’자는 사서의 과목에서도 동일하게 자주 쓰인 의문사이다. 윤선영(2019) 83면 참조.

2,3,4를 차례로 인용하거나 관련한 선유들의 설, 유명 시문(詩文) 등을 나열하여 서술한다. 전책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위의 내용을 전부 포함하며, 이와 더불어 치세의 방도나 선현들의 덕정 관련한 내용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경문의 뜻을 물어보며 시제를 시작하지만 곳곳에 국가의 시무나 현안, 고대 성현들의 훌륭한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대책으로 묻고자 하는 바가 결국엔 국가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관리를 선발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부에서는 의문의 내용을 정리하며 결사로 마무리한다. 당대의 상황이나 현실 비판 등 잠시 화제를 전환시킨 후, 의문으로 제기했던 지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서술을 한다. 결사로 쓰이는 투석어는 주로 제생(諸生), 강구(講究), 원문기상(願聞其詳) 등의 용어가 사용되며, 전책의 경우는 여장친람(予將親覽), 여채택이용지(予採擇而用之矣) 등의 말이 여기에 덧붙여진다.

이상에서 집책과 전책의 예시를 들어, 형식과 내용 면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형식적인 면에서 각 부분마다 서술 요소에 큰 차이점이 포착되지는 않았으나, 내용적인 면에서 나름의 차이점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집책과 전책의 출제자 및 시험 목적이 다른 데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집책은 문과 초시 및 복시의 종장에서 출제되었기 때문에 각 단계별 합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응시자가 이 경문(혹은 경서)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전책은 이미 복시를 합격한 33명이 최종 등수를 두고 겨루는 시험에서 출제되었다. 즉, 이미 응시자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보장된 상황에서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할 인재인지를 획득받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경문의 뜻을 밝혀 나가는 과정의 귀결은 곧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하는 방도를 궁구하고 선현들의 치세를 본받고자 하는 것에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책의 경우는 질문의 요지가 경문의 뜻에 집중되어 있으며, 객관적인 시각으로 질문을 제시하는 태도를 볼 수 있다. 반면 전책은 책문의 앞뒤로 왕 자신과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성의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또 다른 예시로, 1396년 식년문과(전시)의 책제에서 『서경』 「무일」의 황극(皇極)의 의미에 대해 물으며, “왕은 이르노라. 부덕하고 우매한 내가 조종(祖宗)이 쌓은 은덕에 힘입고 신민(臣民)이 추대하는 마음을 받아 왕위에 오르고 보니, 책임이 중대하여 구제할 방도를 모르겠으므로 두렵다. 우리러 전대를 본받아 소강(小康)을 이루고자 한다.”²³⁾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전책의 서두와 말미에서는 요·순·우·탕 등 중국 고대 성군의 정치철을 본받고자 하는 내용, 벽이단(關異端) 등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는 내용이 시제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 선왕들의 치세에서 손익을 물어 후대에 더욱 훌륭한 사회를 이룩하고자 했던 열망을 엿볼 수 있다.

(2) 선유설 인용의 범주와 방식

경책에는 질문의 핵심이 되는 경서를 중심으로, 각종 관련 문장들이 점철되어 있다. 흔히 13경으로 불리는 경서의 경문을 비롯하여, 경문을 주석한 해설서, 역사적 인물과 고사, 유명 작가의 시문, 철학자가 자신의 설을 담아 지인과 주고받은 편지 등 다양한 종류의 문장들이 이에 해당된다. 본 단락에서는 경책에서 선유설들을 인용하는 범주가 대략 어느

23) 尹祥, 『別洞集』 권2, 「策·殿策」, “王若曰, 惟予寡昧, 荷祖宗積累之德, 膺臣民推戴之心, 獲登寶位, 任大責重, 罔知攸濟, 是用惕然. 仰惟前代時憲, 幾致少康, … (하략) …”

정도인지, 이는 사서의 과목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문노라. 소옹(邵雍)의 시에 ‘하늘은 일(一)에서 조화를 나눈다.’라고 하였다. 일이란 숫자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조화가 분화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복희씨가 괘를 만들자 만 가지 조화가 시작되었는데, 획을 나누어 양효(陽爻)와 음효(陰爻)가 되었다. 천지가 자리를 정하자 만물이 생겨났는데, 또한 쌍쌍이 각각 셋다. 이러하다면 조화가 일에서 분화되었다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도(河圖)』의 수는 일을 가지고 육(六)과 짝지우고, 『낙서(洛書)』의 수는 일을 가지고 구(九)와 대가 되게 하였다. 이 둘은 안팎의 짝을 이루는 글이요 조화의 근원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다른 것은 무엇 때문인가? 대연(大衍)의 수는 중오(中五)에서 일어나고, 율려의 근본은 황종(黃鐘)에서 시작하니, 이들은 모두 조화의 묘법에 관계된다. 그럼에도 마치 일에서 근본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무엇 때문인가? ‘일양(一陽)이 처음 동하는 것에서 천지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말은 과연 무슨 의미인가? ‘한 번 구하여 처음 바뀔 때가 생성된 만물의 처음이 된다.’는 말은 과연 무슨 이치인가? 천지의 운행을 논하면서 사파(四破)에 귀결시키는 경우도 있고, 만물의 근본을 탐색하면서 오수(五殊)로 유추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어디에서 근본하기에 이처럼 들쭉날쭉 다르단 말인가? 『장자』의 우언은 만 가지 소리를 구멍 하나로 설명하였고, 『노자』의 저서는 한 곳으로 모여드는 수레바퀴의 살대에서 모든 묘함을 비유하였다. 『노자』와 『장자』가 이단의 학문이라고는 하지만, 또한 조화의 근본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자막(子莫)이 일(一)을 고집하여 권도를 부리지 않은 것은 유교를 해치기에 알맞다. 그렇다면 우리 유가의 주일무적(主一無適) 역시 시행할 수 없는 것인가? 『중용』의 달도(達道)와 달덕(達德)을 행하는 방도는 하나이고, 『통서(通書)』의 정허(靜虛)·동직(動直)을 행하는 요령은 한 가지이다. 그렇다면 ‘조화를 일(一)에서 나눈다’는 의미를 여기에서도 볼 수 있는가? 요 임금과 순 임금이 서로 전수한 요결은 곧 ‘유정유일(惟精惟一)’이고, 공자와 증자가 서로 전수한 요결은 ‘오도일관(吾道一貫)’이다. 신지(莘摯)가 왕에게 권면할 때엔 일덕(一德)을 신신당부하였고, 주왕(周王)이 백성들에게 맹서할 때엔 일심(一心)을 절절하게 강조하였다. 이치는 하나이나 생각은 백 가지라는 일치백

려(一致百慮)는 『주역』 「계사전」에 실린 말이고, 현상은 만 가지로 다르나 근본은 하나라는 만수일본(萬殊一本)은 선유가 하신 말씀이다. 「태극도」를 완성하여 지극한 이치를 하나의 도면으로 밝혔고, 「정완(訂頑)」에 가르침을 남기시어 대본(大本)을 하나의 이치에서 밝혔다. 양휴(揚休) 선생은 일단(一團)에 온화한 기운을 모으고, 잠사 부자(蠶絲夫子)는 일원(一原)에서 우뚝한 공을 거두었다. 이는 모두 예로부터 학문을 하고 정치를 하는 대지(大旨)이다. 모두 '일(一)' 자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니, 조화의 묘(妙)에 또한 서로 발명하는 것이 있는가?24)

위는 1776년(정조 1) 증광시의 대거로 치러진 별시의 초시 일소에서 출제된 책문으로 일중(一中)의 의미를 물어보고 있다. 비교적 긴 길이의 책문으로 약 11개의 소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문은 소옹의 시인 「관역음(觀易吟)」에 “하늘은 하나에서 조화가 나뉘고, 사람은 마음에서 경륜을 일으키네[天向一中分造化, 人於心上起經綸].”라고 한 곳에서 앞의 구절을 인용하며 시작되고 있다. 이 시의 제목에서 단서가 있듯이, 이 책문은 『주역』의 이념 속에서 일(一)과 중(中)의 개념에 대한 질문을 연속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소옹의 시에 이어 복희씨가 괘를 만들었다는 내용의 「계사전(하)」의

24) 尹愔, 『無名子集』 문고 제8책, 「一中」. 〈問. 邵子曰天向一中分造化, 一者不過數之始, 而乃爲造化之所由分者何歟? 伏羲設卦, 萬化攸始, 而分畫陽爻陰爻, 天地定位, 萬物肇生, 而亦且兩對各立若是者, 安在乎造化之分於一乎? 河圖之數, 以一而耦六, 洛書之數, 以一而對九, 此實爲表裏之書造化之原, 而有此不同者何歟? 大衍之數, 起於中五, 律呂之本, 始於黃鍾, 是皆關於造化之妙, 而似若不本於一者何歟? 一陽初動, 可見天地之心者, 是果何義? 一索始交, 方爲生物之初者, 是果何理? 論天地之運, 而歸之四破者有之, 溯萬物之本, 而推之五殊者有之, 是果何所本, 而若是其參差不一歟? 南華寓言, 齊萬吹於一竅, 玄妙著書, 喻象妙於一幅, 是雖爲異端之學, 而亦有得於造化之本歟? 子莫之執一無權, 適足以病斯道, 則吾儒之主一無適, 亦不能有施爲歟? 中庸之達道達德, 所以行者一也, 通書之靜虛動直, 所爲要者一也, 則亦可見造化之分於一中歟? 勛華相授, 乃是惟精惟一, 孔曾相傳, 只是吾道一貫. 莘摯訓王, 申申於一德, 周王誓衆, 切切乎一心, 一致百慮, 易繫攸載, 萬殊一本, 先儒有說. 圖成太極, 闡至理於一團, 銘垂訂頑, 明大本於一理. 揚休先生搥和氣於一團, 蠶絲夫子收奇功於一原, 是皆終古爲學爲治之大旨, 而都不外於一字, 則其於造化之妙, 亦有相發者歟?) 책문의 해석은 이규필 역, 『무명자집』(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3)을 참고하였다.

구절을 인용하고 있으며, 「하도」와 「낙서」, 「복괘(復卦)」와 「진괘(震卦)」의 괘사, 『장자』와 『노자』의 비유, 『맹자』, 『근사록』의 중(中)과 경(敬)의 개념, 『중용』의 방도와 주돈이의 저술인 『역통서해(易通書解)』의 요령, 『서경』과 『논어』 속 선현들이 전수한 요결, 『서경』의 「함유일덕(咸有一德)」과 「태서(泰誓)」 속 이윤(伊尹)과 무왕의 당부, 『주자어류』 속 정자와 주자의 말씀, 주돈이의 「태극도」와 장재(張載)의 좌우명, 양휴 선생과 잠사 부자로 표현한 정명도와 주희의 비유까지 책문의 대부분이 선유설을 인용(음영표시)하는 것으로 채워지고 있다.

이 밖에도 1818년 식년문과 초시(강원도)의 책제²⁵⁾ 또한 살펴보면, 『서경』·「요전」의 대지를 『대학』과 연관시켜 질문하며 시작부터 선유의 설을 인용[問. 先儒曰, 堯典爲大學之宗祖, 其所謂宗祖之旨, 可詳言歟?]하고 있다. 이는 송대 학자인 진덕수(陳德秀, 1178-1235)의 설로, 그는 주희의 수제자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이어지는 책문의 뒷부분에서도 송대 학자 옹화(熊禾, 1253-1312)의 설[先儒或云宜作五截看]과 원대 학자 허형(許衡, 1209-1281)의 설[或云當作四件事]을 인용하고 있다. 옹화는 주희의 문인 보광(輔廣)에게 수학하였으며, 허형은 요설재(姚雪齋)에게서 주자학을 배운 주자학자이다.

이처럼 핵심 경문을 비롯한 사서오경의 관련 경문, 정·주자의 설을 기본으로 주자학자들의 주석을 마구 인용하는 방식은 조선 후기의 책문에서 주로 보여지는 경향이다. 물론 전기의 책문에서도 어느 정도 보여지긴 하나, 후대로 갈수록 인용의 범주가 확장되고 책문 속 선유설 인용 빈도가 높아지는 양상²⁶⁾을 볼 수 있다. 이는 소과 생원시의 과목인 사서

25) 『臨軒功令』 31권, 〈問. 先儒曰, 堯典爲大學之宗祖, 其所謂宗祖之旨, 可詳言歟? 堯典一篇以欽字爲大綱領, 大學一書以誠意爲人鬼關, 果皆有授受之旨歟? ...중략... 堯典則先儒或云宜作五截看, 或云當作四件事, 大學則分爲三綱領八條目, 其於章句條目之間, 一皆符合而無差謬歟? ...하략...〉

의(四書疑)에서도 그대로 보여지는 패턴이다. 다만, 사서의 과목의 경우 조선 후기로 가면 경문의 구절보다 선유의 설들이 더욱 많이 인용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경책의 경우는 여전히 경문의 구절이 더욱 많이 인용되었다는 차이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사서의 과목의 시제는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여러 모로 경책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초시 및 복시에서 고시된 집책에서 더욱 뚜렷이 보이는 양상이었다. 즉 두 과목간 시험을 출제하는 대상[시관], 시험의 요지[경문의 내용], 시험의 목적[경문 내용 확인]이 일치하는 데에서 이러한 결과가 기인한 것으로, 시험의 단계[초시와 복시, 소과와 문과] 및 종류[생원시, 증광시, 별시] 등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나가며

이상에서 경문의 뜻을 밝히는 것을 요지로 하는 경책의 책제를 살펴보고, 출제 양상 및 내용 서술 요소 등을 의·의·시·부 등의 소과 시제들과 비교해 보았다. 책문의 주제가 워낙 다양했던 까닭에 경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소과 시제에 비해서는 낮았으나, 전체 책문 가운데서는 결코 낮지 않은 비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여러 책을 아울러 출제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출제가 집중된 경서 및 편장이 뚜렷이 보이지는 않았다.

경책을 출제 주체 및 고시 단계에 따라 집책과 전책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두 책제 간 내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있었다. 집책의

26) 윤선영(2019), 111-112면 참조.

경우는 생원시의 사서의 과목과 길이 상의 차이점이 있을 뿐 형식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에서 모두 비슷하여, 사서의 시제가 곧 책문의 축소판인 느낌을 주었다. 이러한 유사성으로 인해 사서의 과목을 대책으로 오인하게 되는 경우가 잦은데, 이 또한 수궁이 가는 바이다. 전책에서는 경문의 의미를 강구하면서도 결국엔 왕도정치를 중심으로 하여 태평 성대를 이루고자 하는 경세론으로 이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리 선발을 목적으로 경문의 이해도를 시험함이 주목적인 집책과 방향성을 달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한계로 인해 미처 다 살펴보지 못한 자료들이 있다. 이는 주로 과문선집 등의 수험서와, 문집 및 방목 등의 시제와 일치하지 않는 시제를 기록하고 있는 시권 자료 등이다. 여기에 수록된 책제들을 보완하고 정리한다면, 책제의 다양한 출제 양상과 경책의 실제 등에 대해서도 더욱 근접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그리고 책문의 답안인 대책문(對策文) 또한 반드시 함께 다루어야 할 것이다. 경책에 속하는 대책문의 문장 구조는 생원시의 답안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전책에서 주로 출제된 시무책과는 어떻게 다른지, 특히나 대책의 주요 구성 요소인 설폐(設弊), 구폐(救弊) 등의 조항은 어떻게 대체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후일의 연구로 대신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京外題錄』,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소장기호: 奎9943).
- 金安國, 『慕齋集』, 한국문집총간 20,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91.
- 尹愔, 『無名子集』, 한국문집총간 256, 민족문화추진위원회, 2005.
- 尹祥, 『別洞集』,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소장기호: 奎4072).
- 『臨軒功令』,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소장기호: 奎11437), 2005.
- 正祖, 『弘齋全書』, 한국문집총간 262~267, 민족문화추진위원회, 2005.
- 김광년, 「朝鮮 科試의 箴銘頌 研究」, 『한국한문고전학회』 45집, 2022.
- 박선이, 『肅宗-正祖代 科策과 科表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22.
- 박재경, 『조선시대 책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 윤선영, 『조선시대 과시의 사서의 연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 , 「조선시대 과거 생원시의 한 과목인 오경의 시제 소고」, 『남명학연구』 67집, 2020.
- , 「사서오경의 經文을 주제로 한 科詩 및 科賦 시제 소고」, 『동방한문학』 96집, 2023.
- 이상욱, 『조선 과문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 조선왕조실록(<https://sillok.history.go.kr/>)

A Study on the Chackmun(策問) on the Theme of the Meaning of Gyeongmun(經文)

Yoon, Sun-young *

This paper attempted to examine this in earnest by paying attention to the so-called Gyeongchack(經策), which has the theme of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Gyeongmun'. The scriptures of the 四 Book 五 were the main subjects of the past examination tense, along with historical figures, ancient poems, and famous writers. I studied the tense questions of the raw poetry subject, which directly tested the scriptures, and the tense questions of the poetry and department derived from the scriptures. This paper is the first attempt to analyze the transcriptive tense of major subjects(大科), led by countermeasures, as part of research conducted in connection with this.

Because the subjects of the book were so diverse, the proportion of Gyeongmun was lower than that of Sosugwa Tense, but it was confirmed that it was never lower than that of the entire book. In addition, since the method of presenting various books was mainly based on the method of presenting various books, the scriptures and compilations in which the questions were concentrated were not clearly visible.

When the policy was divided into a collection and a complete policy according to the subject of the examination and the stage of the examination,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the contents of the two book systems. In the case of books, there is only a difference in length from the subject of

* Research professor, Korea University Institute for Sinographic Literatures and Philology / E-mail: bacaaltto@korea.ac.kr

librarians in Saengwon-si, but it was similar in both formal and content, giving the impression that the librarian's tense was a miniature version of the book. Due to these similarities, librarians' subjects are often mistaken for countermeasures, which is also acceptable. In the previous book, the purpose of testing the understanding of Gyeongmun for the purpose of selecting officials was different from the main policy in that the meaning of Gyeongmun was sought, but in the end, it was expanded to the theory of Gyeongseong to achieve peace centered on royal politics.

Key Words

Civil service examination(科擧), examination question(試題), Daechak(對策), Chackmun(策問), scripture of Chinese classics(經文), Four books and Five classics(四書五經)

논문접수일: 2023. 11. 21, 심사완료일: 2023. 12. 16, 게재확정일: 2023. 12. 31.

